

북유럽에서의 교육평가와 선발: 한국교육에의 시사점¹⁾

이윤미²⁾

<요약>

이 글에서는 교육과 선발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북유럽 교육평가의 특징을 스웨덴과 핀란드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논의하고 있다. 한국의 평가 및 선발방식과 비교할 때 스웨덴과 핀란드의 사례는 절대성취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상급 학교 진학이나 변별보다는 학생 개개인이 학업성취목표에 도달하도록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우리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선발이 교육을 압도'하는 양상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사회적 선발(대학입학 및 노동시장진입)의 각종 준거들은 학생의 전인적 발달을 유도하고 다양한 능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방향에서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핵심어】 북유럽, 스웨덴, 핀란드, 교육평가, 선발(준거), 절대성취기준, 절대평가

1) 이 연구는 서울대학교 교육종합연구원에서 개최한 학술회의 <중등 교육과정 · 평가의 문제점과 그 대안> (2010. 11. 12)에서 발표한 내용을 정리한 것임.
2) 홍익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ylee4@hongik.ac.kr)

1. 들어가며

불과 10년 전만 해도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던 북유럽교육에 대해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000년 이후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에서 핀란드가 높은 성적을 보이면서, 북유럽사회는 주목의 대상이 되어 왔다. 소위 노르딕국가(Nordic countries)라고 불리는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아이슬란드 등은 각국의 고유성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모델’로 간주되기도 한다. 사회적 형평성(social equity) 원리가 강하게 작용하는 사회민주주의적 보편적 복지국가체제가 이들 나라들을 특징지운다. 교육에서도 강한 평등원리, 무상교육, 자율적이고 민주적 학교운영, 평생에 걸친 유연한 교육기회제공 등을 통해 평등성과 수월성을 함께 추구해왔다.

북유럽 국가들에서 교육평가는 절대평가이며 학교의 교육과정운영권 및 교사의 평가권이 보장되어 있다. 초중등교육이 대학입학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 독자성을 확보하고 있다. 학생 개개인의 성취가 중시되며, 석차가 없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학교의 정상적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일차적 목적으로 하며 학교간 서열화를 위해 실시되지 않는다.

한국의 교육평가는 교육을 지원하는 평가의 성격보다는 선발을 위한 변별의 수단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되어 왔다. 이는 북유럽교육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다. 교육과 선발이 분리되어 교육이 독립적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는 방식은 무엇인지에 대한 제도적 모색이 시급하다. 이 글에서는 교육과 선발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북유럽 교육평가의 특징을 스웨덴과 핀란드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이 글은 이제까지의 학술연구를 통해 본격적으로 조명되지 못한 북유럽의 교육평가와 선발제도에 대해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기초적 연구로서의 의의가 있으나 개괄적 논의 이상의 분석까지 나아가지 못한 한계가 있다. 이는 이후의 후속 연구에서 심화되기를 기대한다.

2. 스웨덴과 핀란드의 교육평가와 선발제도

2.1 북유럽 모델과 교육³⁾

북유럽의 사회운영원리는 다른 구미국가들과 비교할 때 특징적 경로를 가진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에스핑 앤더슨(G. Esping-Andersen)은 구미국가들에서 복지국가의 성

3) 이 부분의 논의는 이윤미(2010b) 및 이윤미, 손지희(2010)의 논의에 기초한 것이다.

격을 크게 자유주의(미국, 영국), 보수(조합)주의(유럽대륙국가), 사회민주주의(스칸디나비아국가)의 3 가지 전형으로 나누고, 스웨덴을 대표로 한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를 타 유형과 구분한 바 있다. 이 구분에 의하면, 탈상품화(사회권으로서의 복지), 계층화(보편주의), 국가/가족주의 등을 기준으로 볼 때 북유럽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들에서는 자산조사(means-test)에 근거한 잔여적 복지를 중심으로 한 영미자유주의나 직업이나 소득에 기반한 복지제도를 운영해온 유럽대륙국가들과는 다른 특징을 보여 왔다. 직종이나 기여도와 무관하게 보편주의원리에 의해 복지를 제공하고 가족에 대한 복지의존을 최소화했다. 완전고용을 통하여 생산적 복지를 추구해왔고 보편주의에 기반한 연금이나 의료보험을 제공해왔으며 탁아보육 등 모성보호정책을 통해 고용상의 남녀평등을 실현해왔다(Esping-Andersen, 1992: 1998).

교육은 사회전체 노동력 재생산의 매우 중요한 기제가 될 뿐 아니라 개인의 복지 실현에 중요한 기반이다. 스웨덴에서의 교육은 초등교육에서부터 고등교육까지 전면 무상으로 이루어지는 체제를 특징으로 한다. 의무교육은 9 년이지만 무상교육의 연한은 대학원 박사과정교육까지 포괄한다. 이는 교육의 기회나 효과가 개인의 사유물이 아니라 사회적 공유물임을 의미한다. 교육은 사회적 권리이자 공적 자산의 일부이지 개인적 특권이 아니다. 특히 사회민주당 정권에 의해 1940 년부터 논의되고 1962 년이후 실시된 종합학교개혁은 스웨덴사회를 지탱해온 ‘연대(solidarity; 스웨덴어로는 solidaritet)’의 철학을 반영하는 것이다. 스웨덴에서의 연대는 약자와 함께 하는 것을 의미한다(Miron, 1998). 경쟁보다는 협동을 강조하고 평등과 민주주의적 가치를 중시하는 교육을 해왔다.

소위 ‘스웨덴 모델(the Swedish model)’로 지칭되는 사회발전모델은 성장과 분배의 조화를 기간으로 하고 있다. 스웨덴사회를 이해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특징의 하나는 ‘사회민주주의’이다. 스웨덴의 사회민주주의는 오랜 지배정당이었던 사회민주당의 이념을 볼 때 사회주의의 궁극적 실현을 목표로 하지만, 의회주의적 경로를 취하고 생산력 발전을 위해 자본주의산업화를 인정한다는 점이 특징이다(Steinmo, 1988). 따라서 평등성 못지않게 자본주의발전에 기초한 효율성과 성장을 중시해왔고 기업친화적 정책을 도모해왔다. 세금에 의한 강한 재분배정책과 수준높은 복지의 배경에는 자본주의적 고성장이 자리잡고 있었다. 스웨덴식 사회민주주의의 사회운영원리는 계급투쟁보다는 ‘인민의 집(Folkhem 혹은 People’s Home)’으로 상징되는⁴⁾ ‘계급연대’ 정책이라고 할 수 있으며, 강력한 실용노선에 의해 지배되어 왔다(Misgeld et al., 1992). 사회민주주의에 대한 일반적 기대와 달리 스웨덴은 개인소득세는 높지만 법인세는 상대적으로 낮다. 업종별, 부문별 노조의 조직률이 높고 이에 기반한 단체협상으로 분배가 균등하게 이루어져 왔다. 업종별노조는 직업계 교육과정의 직접적 수요를 산정하고 졸업자격

4) 1930년대이후 (Per Albin Hansson 수상 시기) 스웨덴사민당의 정책철학을 대표해온 용어이다.

기준 등을 제시하는 등 공교육내 직업교육의 질관리에도 중요한 역할을 차지할 정도로 사회적 영향력이 높다. 이러한 사회운영의 기반에는 생산력을 높여 전사회구성원이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는 연대의 철학이 담겨 있다. 성장과 분배의 균형, 효율과 평등의 균형, 그리고 이를 이루기 위한 정치적 타협(compromise)과 합의(consensus)의 창출과정은 스웨덴의 정치철학을 표현해주는 핵심적 용어들이다(김인춘, 2007).

스웨덴을 위시한 북유럽국가들에서의 교육은 국가에 의한 높은 투자가 유지되어 세계최고 수준에 이른다. 교원의 조직화에 기반한 높은 지위 유지, 의무교육의 탈복선화(종합학교), 평생학습사회구축(고등교육무상화, 개방적 성인정규교육기회) 등이 특징적이다. 이러한 교육제도운영의 철학도 사회제도운영 원리와 동일하게 경제적 목적과 사회적 목적을 동시 기반으로 한다. 즉 교육은 한편으로는 경제성장의 기초임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모든 인간의 성장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경쟁의식보다는 평등과 공동체/연대에 기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기본 가치로 추구되어 왔다.

이러한 사회민주주의의 발달과정은 20세기 초부터 시작된다. 1932년 이후 단독집권을 시작한 사민당은 제반 개혁을 단행했고 교육은 그 중요한 일부였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종결을 전후해서는 - 유럽 전반에서 형성된 교육개혁의 흐름과 맥을 같이 하면서- 기존의 복선제 체제를 단선적이고 통합적인 체제로 변모시키는 개혁을 성공적으로 단행했다. 유럽 전통적 복선제 역사 속에서 볼 때, 스웨덴에서 1960-70년대에 걸쳐 이루어진 초중등학교의 종합학교(comprehensive school) 개혁은 매우 큰 변화였다.

북유럽적 사회민주주의는 1970년대에 전성기를 이룬 것으로 평가되며, 1990년대 이후에는 경제위기 등으로 인한 변화에 직면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율과 평등의 동시 추진에 기반한 높은 성장과 수준 높은 재분배, 계급연대와 합의창출의 메커니즘, 보편주의적 복지, 공공성과 무상성에 기반한 교육 등은 '북유럽 모델'을 특징지은 요소들이며, 이는 여전히 유효하다(Lindensjö, 1992).

2.2 스웨덴에서의 교육평가와 선발제도

스웨덴은 북유럽모델의 선두적 국가로 지역내 다른 국가들에 앞서 새로운 정책 시도들을 추진해왔다. 스웨덴의 모든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현재의 교육평가는 1994년 개혁에 의해 확정되어 시행되고 있다⁵⁾. 스웨덴의 교육평가는 '통과(G, accepted), 우수(VG, well accepted), 매우 우수(MVG, very well accepted)'의 3단계 평정척도에 의한 절대평가방식을 기본으로 한다.⁶⁾ 공식적 성적(formal grading)은 8학년에 처음으로 배

5) 스웨덴 교육평가와 관련한 내용은 이윤미(2010b), 이윤미, 손지희(2010) 참조.

6) 이러한 척도는 최근 우파 정권의 정책 변화로 EU 기준(A-F 척도)에 맞춰 변경될 전망이다.

부되며 최근, 8학년이 성적을 공식적으로 주는 시기로는 너무 늦다는 일반론이 형성되고 있다. 우파정권은 이를 6학년으로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교원노조들도 조기성적부여(marking)에 대해서는 대체로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스웨덴에서는 과목별 개인 성적이 있을 뿐 석차는 산정되지 않는다. 국가교육과정목표에 따라 수업을 자율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평가기준과 성적은 학교단위에서 협의되고 성적 부여는 담당교사의 자율적 권한이다.

점수에 의한 척도를 사용하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할 때(예. 노르웨이 1-6, 핀란드 4-10 등) 스웨덴의 3 단계 척도는 고유한 측면이 있다. 북유럽에서 전개되어온 교육평가와 관련한 논쟁의 역사에 비추어(Lysne, 2006) 이는 몇 가지 특이점을 갖는다고 보인다.

첫째는 절대평가라는 점이다. 절대평가가 도입된 배경은 1960년대 미국 교육평가이론의 변화와 관련되어 있다. 특히 교육의 성과를 목표(goal)에 기반해서 파악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교사와 학생이 협력관계에 있어야 한다는 Cronbach의 논의가 북유럽교육학계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기존의 상대평가(norm-referenced testing)가 집단 안에서의 상대적 지위만을 알려줄 뿐 교육의 성과를 질적으로 파악할 수 없게 할 뿐 아니라 집단을 인위적으로 정규분포 안에 넣음으로써 학교 안에서의 학습환경을 저해했을 뿐 아니라 불공정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1970년대 이후에는 보다 '진보적' 학풍의 영향으로 교사의 교육과정 자율성과 권한을 강화하고 학생의 개인적 학습속도를 중시하는 방향에서 논의가 이루어졌다. 스웨덴도 1970년대에 유럽 신좌파운동의 영향(사민당의 사회주의는 '구좌파'를 대변)으로 프랑크푸르트학파의 신희머니즘이 교육계에 영향을 주어 평가제도 자체에 대한 비판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평가가 개인에게 의미있고 비공식적으로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국가수준에서도 1969년에 종합학교교육을 평가하면서, 보다 홀리스틱한 관점(인지, 수공, 정서, 심미성, 신체기능, 사회성 포괄)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학생이 평가 되어야 한다는 기획이 제시하는 등 개인의 발달을 중시하는 개별화된 학습과 평가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둘째는 척도가 간단하다는 것이다. 북유럽에서 척도의 세분화 정도에 대한 논쟁은 정치적 입장을 반영해왔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전통적으로 볼 때 초등교사들은 공식적 평가를 최소화하고 덜 세분화된 척도를 원했던 반면, 복선제하에서 엘리트교육을 담당하는 중등교사들은 공식적 평가와 세분화된 척도를 선호했다. 좌파 정치인이나 행정가들은 우파에 비해 덜 형식적이고 덜 세분화된 평가를 주장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따라서 초등학교에서 공식적 평가를 없애야 한다는 것이 논쟁이 된 1970년대에 있어 형식적 평가여부와 척도의 세분화 문제는 '정치적으로' 큰 논란이 된 문제였다. 세분화된 척도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간단한 척도만을 사용해도 학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학생에게 동기부여를 하는 데는 충분하다고 보았다. 또한 세분화된 상대평

가 척도에서 최하그룹에 분류시켜 낙인감을 갖게 되는 느린 학습자들(slow learners)의 압박감을 해소시킬 수 있다는 것을 장점으로 보았다.

셋째는 숫자에 의한 평정이 아니라 질적 평가라는 점이다. 북유럽에서는 19세기부터 숫자에 의한 평정과 글자에 의한 평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진행되어 왔다. 교사들에게 익숙한 전통적 방식은 예수회에 의해 전파된 1-6까지의 점수평정(소수점 인정)이었고, 이러한 방식이 오래도록 지속되어 왔다. 미국에서 영향을 받은 A-F 평정방식도 부분적으로 사용되기도 했다. 스웨덴의 3단계척도는 목표지향적 / 언어적 척도(goal-referenced verbal scale)라는 특징이 있다. 현재 의무교육단계에서 종합학교 저학년(초등)과정에는 공식 평가가 없고, 상위학년에서도 8-9학년에만 있다. 후기중등교육에서는 3단계 이외에 '통과되지 못함(IG, not accepted)'을 사용할 수 있고, 성인교육이나 특수(장애)교육에서는 통과(G)와 우수(VG)의 두 가지만을 사용할 수 있다. 스웨덴의 목표지향적/언어적 척도는 독특한 것으로, 북유럽 국가 내에서도 노르웨이가 교사들의 선호로 전통적 1-6 평정방식(예수회 영향으로 사용)을 고수하고, 덴마크가 13단계척도(1850년대 도입된 Ørsted's scale)을 사용하며, 핀란드가 4-10 평정방식을 사용하면서 대학입시에서 고전라틴어를 사용한 L, E, M, C, B, A, I 방식을 혼용하는 것 등과 비교되는 것이다.

스웨덴의 학교에서 공식 평가는 8학년 이후 학기당 1번씩 과목별 성적표와 전체 성적표를 작성하고 배부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과목담당교사들은 모든 학생의 성적을 소정양식에 근거해서 작성하고 배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담임교사는 전체를 수합하여 학기말 이전에 학부모와 학생 3자회의에서 이를 협의하도록 되어 있다. 3자회의 후 학생은 자기평가서(잘한 부분, 개선할 부분, 향후 계획)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과목별 성적표는 A4 용지 1-2장으로 작성되어 학생에게 배부된다. 과목별 성적표에는 과목별 학습목표가 열거되고 해당 목표별로 학생이 도달했는지의 여부를 3단계(불확실 osäkert, 도달 ja, 도달수준 높음 I hög grad)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서술형 의견도 함께 제시한다. 학습목표는 과목의 교사가 해당 학기 진도에 따라 정하며 그 수준은 과목별로 차이가 난다. 성적표에는 지식과 관련한 사항 이외에 발달을 위한 제안(att utveckla), 과목 내에서의 사회적 발달(social utveckling)도 포함된다. 사회적 발달에 대해서는 과목에서의 수행과 관련하여 '발달이 더 필요한가', '만족스러운가'로 구분하여 체크하고 의견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다. 학기말 전체성적표에서는 과목별 최종 성적(3단계)만 제시된다⁷⁾.

스웨덴에서 1990년대 이후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고 있다(Skolverket, 2005).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는 의무교육단계에서는 5학년과 9학년에 실시되어 왔고, 후기중등학교에서도 1학년에 프로그램별로 실시되고 있다. 2010년부터

7) 부록1의 표들은 각각 과목별 성적표와 전체성적표 양식의 예시로, 스웨덴 스톡홀름시 뢰다베리종합학교(Rödabergsskolan) 8학년 성적표를 참조하여 번역하였다. 성적표 양식은 학교별로 다르다.

터는 초등학교 3학년이 실시 대상으로 추가되었고, 시험과목도 스웨덴어, 수학, 영어 이외에 9학년에서는 과학과목까지 포함되었다. 시험결과는 학교의 학생 지도 자료로 사용하고, 지방자치체별로 공지하여 열람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일반학교 3학년 시험의 경우 특수학교에서는 4학년에 실시한다. 출제는 스톡홀름대학과 북부 우메오대학에서 위탁받아 이루어지며 결과는 국가교육청과 통계청이 함께 수집하여 분석한다. 문항이 특정 교재나 특정 교수방법에 국한되어 출제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스웨덴에서의 국가 학업성취도평가의 특징은 과목별로 몇 달의 시차를 두고 순차적으로 실시한다는 것이며, 과목별로 다양한 능력의 평가가 가능하도록 문제유형(구술, 서술형, 단답형 등)을 복합적으로 제시하여 여러 번에 나누어 평가한다는 점이다. 예컨대 봄 학기 시험은 3월에서 5월 사이에 실시되며 학교들은 시험시기를 선택하여 정규교육과정과 함께 편성한다. 시험실시 전에 담당기관인 스웨덴국가교육청(Skolverket)에서는 안내문을 배부하게 되는데, 초등학교의 경우는 학부모, 9학년부터는 학생을 수신인으로 하고 있다. 학부모와 학생들은 시험의 목표와 방법, 결과활용에 대해 안내를 받게 된다⁸⁾.

시험결과를 바탕으로 학교에서는 학생의 지식발달프로파일(knowledge profile)을 작성한다. 학교는 국가 학업성취도평가와 학교에서 관찰된 능력을 총괄하는 정보를 정리하여 학부모, 학생 간담회 때 개인발달상황에 대해 논의하는 기초로 삼는다. 또한 학생도 과목별로 자신의 역량을 스스로 평가하도록(self assessment) 하는데, 이를 통해 다른 과목 역량과 비교하고 개인적 발달과정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 국가 학업성취도 평가는 다양한 능력을 다면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문제의 난이도가 다양하고 평가도 실패(F), 통과(G), 우수(VG), 매우 우수(MVG)의 4단계 중 과목 및 시험 종류(구술, 서술) 별로 다르게 이루어진다.(※스웨덴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와 관련한 사항은 <부록 2>를 참조)

스웨덴 국가교육청에 의하면, 국가시험은 학습을 돕기 위한 것이어야지 다른 기능을 수행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국가시험은 교사를 지원하는 것이 되어야지 ‘전통적 의미의 시험’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시험을 위한 교육 혹은 교육과정 협소화와 같은 부정적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야 한다고 본다(Skolverket, 2005:19). 국가 학업성취도 평가는 교사의 평가 자율성이 보장되어 있는 조건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전국적으로 균등한 교육을 보장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이며, 교사의 평가를 보조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평가를 지원하려는 것이다(Skolverket, 2005:19).

스웨덴에서 대학입학을 위한 지원은 대학간 공동입학관리(pooled admission system)에 의해 이루어진다⁹⁾. 대학에 지원을 할 때는 학과의 정규교육과정에 지원할 수도 있

8) 국가학업성취도평가와 관련한 기본자료는 스웨덴국가교육청 웹사이트를 참조.
<http://www.skolverket.se/sb/d/2912>

고 한 두 과목이나 프로그램에 지원을 할 수도 있다. 대학에서의 선발기준은 고교 학점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대학을 다닌 기록을 제출해도 대학에서의 점수는 입학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고교 학점에 근거하여 학생들의 등수가 매겨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입학가능성이 높다. 해마다 정원 대비 지원자가 다르기 때문에 합격을 위한 점수 기준대를 객관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어렵다. 지원자가 많을 경우, 대개 성적(평균학점)을 기준으로 한 선발경쟁을 거치게 된다.

대학(학부) 진학을 위한 기본자격은 다음과 같다. 첫째, 16 세(의무교육) 이후 과정인 후기중등교육을 마쳐야 한다. 둘째, 국제적으로 승인된 영어 평가 점수를 제시해야 한다(TOEFL, IELTS 등). 셋째, 2009년 12월 31일 이후의 고교 졸업자는 수학점수를 필수로 요구한다(스웨덴 수학 A 과정에 도달(10학년 기준)). 넷째, 이상의 일반적 기준 외에 대학에서의 프로그램에 따라 추가적 기준이 제시된다. 대개 전공분야와 관련한 세부적 조건들이 요구되는데, 예컨대 경제학의 경우 고교 수학 성취도를 중시한다(수학 A 이상의 수학 성취를 요구함). 이러한 세부적 기준들은 대학들의 홈페이지에 명시되어 있다.

스웨덴의 대학입학자격기준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고교교육과 내신 성적이 중시된다는 점이며 대입자격시험과 같은 별도의 시험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스웨덴은 1970년대 후기중등교육개혁을 거치면서 모든 계열(일반계, 직업계)의 학생들에게 후기중등학교졸업과 동시에 대학입학자격을 부여하는 통합적 체제를 유지해왔다¹⁰⁾.

2.3 핀란드에서의 교육평가와 선발제도

핀란드에서 사회민주주의적 강령에 근거한 보편교육 이념은 20세기 초부터 등장하고 있다¹¹⁾. 지금의 다수당인 사회민주당(Social Democratic Party)은 1899년 핀란드노동자당(the Finnish Workers' Party)으로 출발했다. 1903년에 승인된 정당 강령에 보편적 참정권, 무상의료, 8시간노동 등과 함께 의무교육안이 명시되어 있다. 1917년 핀란드 의회는 비사회주의정당이 다수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개혁의 필요에 동의하여 세계 최초로 8시간 노동을 입법화하였고 지역선거에서 여성을 포함한 보편참정권을 인정하였다. 1920년대와 30년대 핀란드 경제는 유럽에서 최고인 연평균 3.8% 성장률을 보였다. 경제력에서도 영국, 독일, 스웨덴에는 못 미쳤지만 오스트리아, 이태리, 체코슬로바키아처럼 규모가 크고 산업화된 국가들보다 높은 생활수준(standards of living)을 확보하게 되었다(이윤미, 2010a: 75-105).

1921년에는 7-12세 아동에 대한 의무교육이 도입되었고, 1937년에는 세계 최초로

9) <http://www.studera.nu/studera/1636.html> 참조

10) 이는 2010년 이후 재집권한 보수연합정권의 정책에 따라 변화될 예정이다.

11) 핀란드 교육개혁의 역사적 과정과 특징에 대해서는 이윤미(2010a) 참조.

‘모성보호패키지(maternity package)’를 제도화하였다. 이 패키지는 모든 산모들에게 기저귀, 담요, 옷, 장난감 등 기본 사항을 담은 박스를 제공하는 것이었는데, 처음에는 임금수준에 따라 지급하다가 1941년에는 모든 산모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였다(이윤미, 2010a: 105). 1939년 제2차 세계대전 발발 전에 이미 기본 사회안전망을 갖추게 되었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소위 ‘요람에서 무덤으로(cradle-to-grave)’로 상징되는 스칸디나비아형 복지국가의 전형적 혜택들을 제도화하였다.

이러한 기초 위에서 1960년대 이후 핀란드의 교육 개혁이 이루어졌다. 교육 개혁 이전의 핀란드 교육은 유럽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던 이원적 교육체제로 이루어져 있었다. 즉 대학진학을 위한 교육체제와 직업계열의 교육체제가 11세부터 조기 분화되어 있었다. 미국이나 스웨덴이 후기 중등교육과정까지 일반계와 직업계를 하나의 학교로 통합한 ‘단선제’ 모델을 구축해온 사례들이었다면,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오래도록 ‘복선제’ 시스템을 유지해왔다. 이는 단지 중등교육 단계에서 일반계와 직업계가 구분된 것이 아니라 사회계층에 따라 교육과정이 초등과정부터 엄격하게 분리된 말 그대로의 이원화된 체제였다고 할 수 있다.

1972년에서 1992년까지 20년간 핀란드 국가교육위원회 사무총장을 맡았던 사민당 소속의 Erkki Aho에 의하면 개혁 이전의 핀란드 교육은 11세에 대학진학여부가 결정되는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체제였고 수준별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학교만 분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교사들도 분화되어 있었고 교육과정 구성도 매우 달랐다. 이러한 체제를 하나의 체제로 단일화하는 개혁이 바로 1960년대에 이루어진 종합학교개혁이었으며 이는 단순한 학제 변화가 아니라 교육시스템 전체를 뒤 흔드는 것이었기 때문에 매우 복잡한 개혁과정을 포괄하는 것이었다. 어려운 변화였음에도 불구하고 개혁후 20년간 교육 리더십이 안정된 점은 새로운 체제가 안착할 수 있는 중요한 조건의 하나였다(에르끼 아호, 2010).

핀란드는 다른 북유럽국가들에 비해 교사의 권위가 높고 수평적이면서도 엄격한 훈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으로 알려져 있다. 훈육에 대한 규정은 핀란드 교육법에도 명시되어 있다(Basic Education Act). 교사의 훈육권에 대하여 법적으로 명시하는 것은 그것이 학생의 학습권과 충돌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교육법상으로 나타나 있는 훈육권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 수업방해, 학칙위반, 부정행위시 최대 2시간까지 방과후 잔류 혹은 서면경고
- 위반행위가 심각하거나 1단계 지도 불응시 최대 3개월까지 정학
- 다른 학생이나 학교 시설에 폭력적 행위를 가하거나 수업에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을 시 등교 금지
- 학교는 정학생을 위한 개인학습 및 교정계획 수립해야 함
- 수업을 방해할 경우 교사는 해당 학생에게 교실을 떠나 별도 장소에 가 있도록 지

시할 수 있음

- 숙제를 안 해 올 경우 교사는 방과 후 남아서 최대 1 시간까지 하도록 지시할 수 있음

스웨덴에서와 마찬가지로 핀란드의 교육평가는 절대평가를 특징으로 하며 국가교육과정 목표를 기본으로 한 교사의 평가자율권을 존중하고 있다. 다만 스웨덴에서의 언어적 척도와 달리 4-10 점 척도를 사용하고 있으며, 대입자격시험에서는 고전라틴어를 사용한 L, E, M, C, B, A, I 방식을 쓰고 있다. 4-10 점 척도에서 4는 불가, 5는 합격, 6은 가, 7은 조금 좋음, 8은 좋음, 9는 우수, 10은 특히 우수로 해석된다. 초등학교 단계에서는 자기평가가 중시되고, 1-2학년에서는 문장평가, 3학년이상에서는 점수평가가 허용된다. 중등과정에서는 교사의 평점이 중요하며 9학년말에 최종성적이 통지된다. 평가는 개인의 성취와 도달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지 개인이나 학교를 서열화 하지 않는다. 최종성적은 국어, 과학, 외국어 등 주요 교과목의 평점을 평균낸 것으로 기초학교를 수료하는 기준으로는 7점 이상이면 된다(후쿠타 세이지, 2008: 92-93).

핀란드에서는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를 전수조사 방식으로 하지 않고 표집조사 형태로 실시하여 진단과 연구의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는 스웨덴을 비롯한 구미국가들과 차이를 드러내는 점이다¹²⁾.

후기중등과정(고교단계)에서는 일반계와 직업계가 뚜렷이 구분되어 있고, 대학진학을 목적으로 하는 학생의 경우 국가가 주관하는 대입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일반계열과 직업계열간의 이동은 가능하며 직업계열 학생이 대학진학을 원하는 경우 일반계열 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대입자격시험에 통과해야 한다. 대학진학은 내신, 대입자격시험, 대학별본고사를 종합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대개 비율상으로는 준거별로 내신(20%), 대입자격시험(40-45%), 본고사(35-40%) 등으로 구성되는데 대학별 본고사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크게 작용하기도 한다.

핀란드에서의 대입자격 시험(matriculation examination)은 고교 교육과정의 이수여부와 성숙도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며 이를 근거로 하여 대학입학자격을 부여하려는 것이다. 시험은 국가 주관으로 1년에 2번 실시되며 별도의 대입자격시험위원회(40인 전문가, 330인 보조인력)에 의해 관장된다. 학생은 연속 3학기 이내에 정해진 모든 시험을 통과해야 하며 기간 내에 통과하지 못할 경우 처음부터 재시험을 봐야 한다. 개인에 따라 원하는 경우 한 학기에 전체 시험을 모두 통과할 수 있다. 시험과목은 최소 4과목이며, 공통필수와 선택필수로 구분된다. 모국어는 공통필수이며, 나머지는 학생이 4개영역 중 3개 과목 선택할 수 있다. 시험과목은 모국어, 제 2국어(핀란드어, 스웨덴어), 외국어(영, 독, 불, 서반아, 러, 이탈리아), 수학, 일반교과(과학 & 인문학 관련

12) 핀란드가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를 도입하지 않는 이유는 PISA에서 높은 순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굳이 높은 비용을 투자하면서 전수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핀란드 National Board of Education, 2010년 5월 18일 Ritva Jakku-Sihvonen 면담).

12 개 과목) 등으로 구분되며 원하는 경우 필수과목 외의 선택과목에 응시할 수 있다. 각 과목에 응시하기 위한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고교 교육과정이 요구하는 관련 교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일부 교과(수학, 제 2 국어, 외국어)는 2 단계의 난이도(basic, advanced)로 구성되는데, 적어도 한 과목은 고급(advanced) 단계로 시험을 봐야 한다. 전 과목 합격시 증서를 받게 되며, 정해진 기간 내에 필수과목을 모두 합격하지 못하면 전체과목을 재응시해야 한다. 재시험의 경우 이미 합격한 시험은 1 회에 한 해 재응시할 수 있으며, 불합격한 시험은 연속 3 회 내에 2 회까지 재시험이 가능하다. 시험 결과는 7 등급으로 나뉘어 판정되며 등급간 비율은 5%(L) - 15%(E) - 20%(M) - 24%(C) - 20%(B) - 11%(A) - 5%(I)로 정해져 있다.

일반계 중등학교들(김나지움)은 교과목 진도를 시험 전에 완료해야 하며, 교육과정상 필수과목은 2년 이내에, 선택과목은 마지막 학년도에 다룬다. 학교들에서는 기출문제들을 가지고 시험 준비를 시키며 졸업반학생들을 위해 2월 중순에 수업을 마치고 2-3 주간은 시험 준비를 시키기도 한다.

핀란드에서 나타나는 대학입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Vääljäärvi, 2009).

첫째, 대학진학을 위해서는 일반계고등학교에서 대입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하며 전문계학생의 경우도 해당학점이수 및 시험통과가 요구된다. 그러나 전문계열 학생의 극소수만이 대학진학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 이것이 대학진학의 장벽으로 인식되고 있지는 않다.

둘째, 고등학교 교육과 대학진학 그 자체는 구분되어 있다.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대입자격시험 합격을 위한 교육을 하지만, 원하는 대학을 지원하고 합격하는 것은 학생의 선택이다. 또한 분야에 따라 (특히, 법학) 본고사 준비를 위한 사교육도 존재하며 (고액의 전문 강좌 수강) 원하는 학과를 가기 위해 몇 년간 준비를 하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로 핀란드에서는 대학 신입생의 평균연령이 OECD 국가 중 높은 편(만 21 세 이상)이기도 하다.

셋째, 과거에는 현장 경험이 대학진학에 유리했으나 최근에는 입직연령을 낮추고자 하는 정부 방침에 따라 고교졸업직후 학생들에게 유리하게 변화하고 있다(이는 대학 본고사보다 대입자격시험이 중요하게 작용함을 의미).

넷째, 핀란드대학은 선발자유권을 지니고 있어 학교별, 학과별로 선발기준이 다양하다. 예컨대 교사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학교간 기준을 통일시켰고, 본고사 없이 대입자격시험우수자위주로 선발하는 학과도 있다(수학, 물리, 화학 등).

전공이나 프로그램별로 대입전형방식에는 차이가 있는데, 예컨대 초등교사 양성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몇 개 대학의 공동전형 후 대학별고사가 실시되는 방식이 취해지고 있다. 이를 간단히 예시하면 아래와 같다.

- 교사교육기관(7개 대학) 중 3개 대학지원 (합격율 10-15%, 여학생 80%)
- 모든 대학에서 동일한 지필고사 (연구논문 등에 기초. 자료는 6주 전에 지원자에게 제공. 자료관련 지식이해보다는 교육현장에서 요구되는 문제해결력을 평가하는데 주안점을 둠)
- 대학별 최종 적성시험 suitability test (선발기준 및 인원 대학 내에서 결정)
예: Jyväskylä 대학의 경우, 1차 240명 선정 -> 최종 80명 선발
두 단계: 1) 인지 및 행동전략 검사 (설문조사, 실제문제해결); 2) 개인 면접 (적성, 동기)
- 결과에 불만이 있는 지원자는 이의제기 가능

핀란드 교육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의무교육기간 동안에는 철저한 평등과 통합의 원리를 적용하고, 후기중등이후는 진로에 따른 선택을 강조한다는 점이다. 의무교육단계에서는 국가수준 전수조사 등이 실시되지 않는 반면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엄격한 대입자격시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핀란드에서는 후기중등교육단계에서 스웨덴과 달리 일반계와 직업계가 실질적으로 분리되어 있어 대학진학은 일반계학생의 관심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이기도 하다. 직업계에서는 직종 및 직능별로 현장기반의 자격증 취득이 중시된다.

3. 나가며: 한국중등교육에 대한 시사점

이상으로 스웨덴과 핀란드의 교육평가와 선발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살펴보았다. 한국의 평가 및 선발과 비교할 때 스웨덴과 핀란드의 사례는 절대성취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상급학교 진학 자체보다는 국가교육과정 목표에 따라 학생 개개인이 목표도달을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주목할 수 있다. 중등학교까지 학교의 역할은 모든 학생이 국가적 성취기준에 도달하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대학입학전형에 맞추기 위한 입시준비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아닌 것이다. 교육평가와 선발제도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이 도표화할 수 있다.

표 1. 스웨덴, 핀란드, 한국의 주요 특징 비교

	스웨덴	핀란드	한국
교사에 의한 평가	절대평가(교사평가권)/ 석차제도 없음	절대평가(교사평가권)/ 석차제도 없음	상대평가(내신백분율)/ 석차제도 있음
국가 학업성취도평가	전수조사	표집조사	전수조사
대입전형	내신+대학별전형	대입자격시험+ 내신+대학별전형	내신+대입수능 +대학별전형
고교·대입의 연관	분리 (내신중심고교교육)	분리 (대입자격시험위주 고교교육)	미분리 (대입준비전체 관장)

이들 나라에서는 절대평가를 실시하고 있어 교사의 수업운영 자율성과 평가권이 존중되고 있다. 또한 교사들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지원체제가 체계적으로 갖추어져 있다. 스웨덴의 경우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는 전수조사 형태로 실시되고 있지만, 고부담 평가로서의 효과를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교사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절대평가를 보조하여 전국적 수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려는 취지를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있다(Skolverket, 2005: 19).

또한 고교교육과 대학입시가 분리되어 있어 대학입시가 초중등교육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한국의 교육문화와는 차이가 있다. 핀란드의 경우 대입자격시험이 졸업자격시험이기도 하여 고교 교육의 중요한 과정의 일부로 간주되고 있다. 일반계 후기중등학교에서는 전체 학생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대학입학자격시험에 합격하도록 하는 것을 자신의 역할로 의식하고 있다. 대학진학과정인 고등학교교육과정과는 별개의 절차로 간주되고 있는 것이 한국 교육문화와 크게 차이나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대학진학을 목적으로 하는 학생과 직업계열을 선택하는 학생 간의 진로 구분이 명확하고, ‘대학졸업장’에 대한 가치평가방식도 한국과는 다를 수 있다. 이는 대학학력보다 직업현장경력을 우대해온 노동시장체제와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북유럽국가들은 사회이념 및 체제 그리고 각종 사회적 조건이 한국과 매우 다르기 때문에 직접적 비교를 하는 것은 쉽지 않다. 다만, 한국교육 개선을 논의하기 위해 이들 나라로부터 다음과 같은 점을 시사 받을 수 있다고 본다.

첫째, 194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북유럽의 현 교육체도가 완성되기까지 매우 체계적이고 장기적 논의가 있었고 그 이후 그러한 개혁내용을 정착시키기 위한 일관성 있는 노력이 유지되었다. 교육을 국방과 함께 국익(national interest)과 관련한 사항으로 보아 교육정책에서 국민적 합의를 이루어내야 한다고 보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국익의 관점은 구성원 전체의 발전을 국가적 사안으로 보는 강한 공공성에 기반해 있기 때문에 가능한 발상이기도 하다. 즉 전체적 복지시스템의 일부로 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형평성 있는 교육이 매우 중시되어 왔고, 교육의 최종 수혜자는 개인이라기보다 국가사회라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잡고 있다. 대학원까지의 전면무상교육, 성인에 대한 계속교육기회 제공 등은 단지 교육정책이라기보다 국가사회의 인력정책 속에서 폭넓게 이해될 필요가 있다.

둘째, 이들 나라에서는 국가의 과목별 성취목표에 따른 절대평가를 실시하고 있고, 개인 간 변별보다는 학생 개개인의 목표도달도가 중요하게 간주된다. 따라서 학교에서의 교육평가 기능이 교육과 학습을 지원하는 ‘교육평가 본래의 목적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평가의 본래 목적이 가르치는 과정에서의 효과성을 높이고, 가르치고 있는 것을 제대로 가르치는지 재려고 하는 능력을 제대로 재고 있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한 ‘타당도’에 일차적으로 맞춰져야 한다면, 이들 나라에서는 그러한 목적에 충실한 교육이 가능한 조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볼 수 있겠다. 평가 결과의 보고 방식 또한 학생의 발달 상황을 질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 학생 개개인의 목표 도달수준을 확인하고 지원하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학교교육과 대학입시가 분리되어 있다. 학교교육에서는 국가교육과정목표에 따라 교과별 특성에 따른 교육이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기대되고 대학입시는 대학의 필요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다. 이것이 가능하게 된 배경은 우리와 비교하여 몇 가지 차이가 있다. 우선, 대학의 학생선발권 보장이 가능한 것은 노동시장 내 학력 간 임금격차나 각종 사회적 기회 차원에서 대학진학자체가 삶의 기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즉, 대안적 삶의 기회가 보장되고 ‘폐자부활’의 기회가 허용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주목된다. 예컨대 스웨덴에서는 ‘25+5 정책’을 통해 25세 이상으로 5년 이상의 직장경력을 가진 자에 대해 대학입학에서의 우선권을 준바 있으며, 인생에서 ‘제2의 기회(second chance)’를 부여하는 것을 중시해왔다(Kim, 1979).

또한, 유럽적 복선제의 사회적 영향력으로 학생들이 적성에 따라 일반계와 직업계 선택을 하기 때문에 대학진학에 대한 태도가 한국과 다르다. 대학은 아카데미한 목적을 추구하는 학생에게 의미 있는 진로로 인식되고, 전문 직업세계에 직접 진입하려는 학생은 굳이 대학진학을 열망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고교 졸업 이후 ‘직코스’로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도 일반적이지 않으며, 대학에 가지 않는 것이 인생의 실패로 인식되지 않는다. 따라서 대학에 가기 위한 경쟁은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할 수 있다. 대학을 가기 위한 경쟁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일부 학생들에 국한되어 있으며, 경쟁이 높은 학과도 일부에 제한되어 있다.

넷째, 대입선발과정에서 고등학교교육을 정상적으로 받는 것을 중시한다. 스웨덴의 경우 별도의 영어능력시험을 요구하는 것 외에는 전적으로 고등학교 내신에 기반해서 대학진학이 이루어진다. 핀란드에서는 대입자격시험을 통해 고등학교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북유럽 교육평가의 성격은 한국교육개혁을 논의하는데 시사점을 준다. 특히 초중등 교육의 내실을 강조하고 학생들의 전인적 발달에 필요한 교육에 충실하다는 것은 큰 장점이다. 평가 또한 절대평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인의 상대적 위치(석차, 변별력) 보다는 일정수준의 성취목표에 도달하는 것을 중시한다. 우리의 학교는 다양한 실력을 키우고 인격적으로 성장하는 장소가 되기보다 ‘승부를 겨루어 증서(성적표, 졸업장)로 승인받는’ 곳이 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또한 선발과 변별의 목적을 위해 일부 교과들을 편중되게 강조하고, 개인의 전면적 발달을 돕는 다양한 교육내용들을 주변화하고 있다. 한국의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선발이 교육을 압도’하는 양상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사회적 선발(대학입학 및 노동시장진입)의 준거들은 학생의 전인적 발달을 유도하고 다양한 능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방향에서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표준화점수=능력’이라는 단순도식으로부터 벗어날 필요가 있다. 학생이 상대적 경쟁에서 얼마나 성공적인가를 승인해주기보다 무엇을 배웠고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는지 그 다양성을 존중해내고 가려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¹³⁾.

13) 본 논문은 2011. 5. 31. 투고되었고, 2011. 6. 30. 심사가 완료되었으며, 2011. 7. 15. 게재가 확정되었음.

❖ 부록 1 : 스웨덴 학교의 내신성적표(예시)

<과목별 성적표 예시 (8학년 체육)>

체육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된다면 본 과목의 학습 목표에 도달할 것으로 기대된다.[전 과목 공통]	<input type="checkbox"/> 불확실	<input type="checkbox"/> 도달	<input type="checkbox"/> 도달수준높음
식품, 운동, 건강 간의 관계에 대해 이해하고 있다.	<input type="checkbox"/> 불확실	<input type="checkbox"/> 도달	<input type="checkbox"/> 도달수준높음
경기, 무용, 운동 및 기타 활동과제에 맞는 동작을 따라 익히고 즉각적으로 해봄으로써 수행해내는 능력이 있다.	<input type="checkbox"/> 불확실	<input type="checkbox"/> 도달	<input type="checkbox"/> 도달수준높음
(중략)			
교사 의견 [질적 기술]			
별도의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불필요	<input type="checkbox"/> 필요	<input type="checkbox"/> 지원프로그램제공 중
발달을위한제언[질적기술]			
사회적발달 (학습과정에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존중한다.	<input type="checkbox"/> 발달필요	<input type="checkbox"/> 만족	
자신의 학습을 스스로 책임진다.	<input type="checkbox"/> 발달필요	<input type="checkbox"/> 만족	
별도의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불필요	<input type="checkbox"/> 필요	<input type="checkbox"/> 지원프로그램제공 중
잘 수행하고 있는 것: 더 개선되어야 할 것: [질적 기술]			

<학생별 학기말 성적표 예시(종합학교/의무교육)>

학기말보고Endoftermreport(의무교육compulsoryeducation)			
학교명: 지방자치단체: 발행일자: 학년: 학기:			
학생이름(성, 이름)		국가등록번호(ID)	
과목/과목군	성적	과목/과목군	성적
예술 영어 가정 및 소비자학 체육 및 보건 수학 현대언어(선택언어) 모국어 (자연과학) 생물 물리 화학	MVG(예시) VG(예시) G(예시) ***(예시)	(사회과학) 지리 역사 종교학 윤리 수공 스웨덴어 스웨덴어(제 2 언어) 청각장애특수언어 기술	
학교장 서명란 담임 서명란 차기 학기 예고 (다음 개학일 안내)			
(비고) 성적: G(통과, pass), VG(우수, pass with distinction), MVG(매우 우수, pass with special distinction) ***: 졸업이수자격부여를 위한 학습목표에 도달하지 못함 (의무교육법안 7 장 9 절 참조)			

❖ 부록 2 : 스웨덴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아래에서는 국가 학업성취도평가가 운영되는 방식의 예시를 위해 2008년 가을에 실시된 스웨덴어(2 외국어)시험과 2005년 봄에 실시된 수학시험을 간단히 소개한다¹⁴⁾.

2008년에 실시된 스웨덴어시험의 경우 크게 구술시험과 서술형시험으로 구분되었다. 시험 전에 학생들은 주제모음집(31 페이지 분량의 자료로 31 개의 텍스트와 그림으로 구성)을 미리 제시 받고 이를 기초로 구술시험에서 교사와 학생들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말해야 한다. 구술시험은 5분간 발표와 질의응답으로 이루어진다. 발표자는 청중이 자신이 발표하고자 하는 텍스트나 그림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의식해야 하며, 발표 전에 150-300 자 정도의 요약물을 제출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자료에 대한 기본정보가 표시되어야 한다.

서술형시험은 전국의 모든 학생이 같은 시간에 시험을 보며 시간은 300 분(5 시간)이다. 학생들에게 시험 전 배부된 주제모음집에는 일간신문기사 등을 포함한 다양한 텍스트들이 포함되었는데 “의미있는 만남, 종교와 전통, 노동의 기쁨, 온상효과-실제로 위협적인가, 매스미디어가 만든 것인가, 폭력으로 범벅된 일상, 문학으로부터의 인상” 등의 주제를 담고 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은 “내가 머리수건을 썼을 때 엄마는 걱정했다”는 유력일간지 Dagens Nyheter(2007년 9월 4일)에 실린 기사를 읽고 이슬람 이민여성이 스웨덴사회에 살면서 종교와 정체성의 갈등을 겪는 문제에 대한 인상을 기반으로 시험문항에 답을 해야 한다. 시험문제는 9 개의 하부주제로 나누는데 학생들은 이 중 하나를 선택해서 시험문제의 요구에 맞게 답을 써야 한다. ‘종교와 전통’이라는 하부주제의 시험문제와 평가기준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스웨덴 국가 학업성취도평가 시험문제 예시 1(스웨덴어)>

스웨덴은 탈종교화한 나라로서 종교가 더 이상 사람들의 삶(인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종종 묘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크리스마스와 id al-fitr 와 같은 많은 종교적 명절을 기념한다. 라디오 프로그램 P3 Tro (P3 믿음)은 우리 시대의 종교적 전통에 대해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기 위해 청취자들에게 자신의 개인적 경험을 기술하도록 요청한다.

→ *당신의 경험담을 써보라. 당신이 경험한 종교적 전통을 한 개 아니면 여러 개 기술하고 이러한 종교적 경험이 어떻게 당신의 인생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밝혀라. 당신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주제모음집의 관점들과 비교하라. (성적은 IG (실패)에서 최우수성적 (MVG)까지 받을 수 있다.)*

14) 이는 2010년 스웨덴국가교육청 황선준 박사가 제공한 번역 자료에 근거한 것이다.

<스웨덴 국가 학업성취도평가 서술형 문항 평가기준(스웨덴어)>

통과(G)	우수(VG)	매우우수(MVG)
학생의 text는 기획한 프로그램에 하나의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학생의 text는 기획한 프로그램에 하나의 적합한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학생의 text는 생각할 가치가 있고 구성이 잘 된 자료다.
학생은 간단하지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종교적 전통에 대해 기술하고 그것이 어떻게 학생의 삶에 영향을 미쳤는가를 뚜렷하게 밝힌다.	학생의 서술은 읽을 가치가 있고 많은 정보 (지식)을 제공한다. 어떻게 삶에 영향을 미쳤는가를 밝히는 것이 확신을 주고 흥미를 자아내게 해야 한다.	학생의 서술은 아주 잘 되었으며 (initiated) 통찰력 있게 삶에 미친 영향을 밝히고 text는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열성적이게 한다.
학생은 주제모음집을 사용하고 자신의 경험을 다른 사람들의 경험과 비교한다.	비교가 알차고 그 상황에 잘 맞다.	잘 선택된 예를 제시하고 비교가 하나의 잘 참여하는 사회관점 (perspective)을 보여준다.
자료의 참조나 인용이 잘 되었고 각주가 있다.	자료의 참조나 인용이 잘 선택되었고 각주 사용이 잘 되었다.	자료의 참조나 인용이 잘 선택되었고 각주 사용이 잘 되었다.
Text는 앞뒤 문맥이 맞고 대체로 잘 구성되어 있다.	Text는 앞뒤 문맥이 맞고 잘 구성되어 있다.	Text는 앞뒤 문맥이 맞고 잘 구성되어 있다.
언어 (언어구사)가 완벽하지 않다 할지라도 대체로 뚜렷하다.	언어 (언어구사)가 뚜렷하고 변화가 있고 거의 완벽하다. 문체가 상황에 잘 맞다.	언어 (언어구사)가 우아하고 확실하며 상황에 잘 맞다.

2005년에 실시한 수학시험의 경우, 단답형(15 문항)과 서술형(11 문항)으로 문제가 구성되었으며, 시험시간은 총합 180 분(3 시간)이었다. 수학시험은 난이도에 따라서 G 만 받는 문항, 잘 할 경우 VG를 받을 수 있는 문항으로 구분된다. 서술형 문항은 문제풀이가 상세해야 하며 풀이과정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주어지면 부분점수가 인정된다. 서술형문항 중 4개 문항에 대해서는 잘 할 경우 MVG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특히 난이도가 높은 11번 문항에 대해서는 평가준거를 상세화하여 채점을 하도록 했다.

2005년 시험의 경우 수학 최고점수는 60 점이며, 27 점이 우수(VG)로 구성된다. 통과 성적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19 점을 획득해야 한다. VG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35 점을 획득해야 하고 그 중 적어도 11 점은 우수성적 문항에서 점수를 획득해야 한다. MVG를 받기 위해서는 MVG를 받을 수 있는 4개 문항 중 적어도 3개 이상에서 최우수성적 수준을 획득해야 하며 다른 문항에서도 VG를 적어도 20점 이상 받아야 한다. 이는 MVG에 대한 기준이 매우 엄격함을 알 수 있다. 예시문항과 문항 11의 평가준거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스웨덴 국가 학업성취도평가 시험문제 예시 2(수학)>

수학문항	
[단답형 예시]	
5. 다음 방정식을 풀어라	(통과 1 점)
$7(x - 3) = 49$	답: $x =$
7. 6kg의 사과에서 Astrid는 2,8ℓ의 사과주스를 만들어 낸다. 같은 종류의 사과 15kg에서 그녀는 몇 ℓ의 주스를 만들어 내는가? (통과 1 점)	
답: liter	
11. Persson 가족은 자신의 은행융자에 대해 1년에 18,000 크라운의 이자를 지불한다. 이자율은 6%이다. 은행융자는 얼마인가? (우수 1 점)	
답: 크라운	
12. x는 y보다 200이 더 많다. 이를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만들어라. (우수 1 점)	
답: =	

[서술형 예시]

10. Martin 과 Johanna 는 새로운 차를 한대 사려고 한다. Johanna 가 시가 194,000 크라운 차 한대에 관심을 보인다. Martin 은 이런 차종의 가치는 1 년에 약 17% 정도 감소한다고 주장한다. Martin 과 Johanna 는 이 차의 가치가 3년 후에는 얼마나 될 것인지 아래와 같이 계산했다.

Martin 의 계산:

$$17\% + 17\% + 17\% = 51\%$$

$$100 - 51 = 49\%$$

$$49\% \text{ 곱하기 } 194000 = 95,060 \text{ 크라운}$$

Johanna 의 계산:

$$1 - 0,17 = 0.83$$

$$0.83 \text{ 의 세제곱 곱하기 } 194,000 = 110,927 \text{ 크라운}$$

누가 이 문제를 맞게 풀었는가? Martin 과 Johanna 가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설명하라.

(통과 1 점/ 우수 2 점)

11. 서로 뒤따르는 상수

서로 뒤따르는 상수 세 개를 선택하라, 예를 들어 6, 7, 8

이 상수들을 합치면: $6+7+8 = 21$

중간 수를 상수의 수로 곱하라: $7 \text{ 곱하기 } 3 = 21$

- 서로 뒤따르는 다른 상수 세개를 선택해서 위와 유사한 계산을 해 보여라. 당신의 계산의 결과를 기술하라. 상관관계를 말과 공식으로 설명하라.
- 유사한 방법으로 서로 뒤따르는 상수 다섯 개나 일곱개의 합계를 조사하라. 당신의 조사를 기술하고 상관관계를 말이나 공식으로 설명하라.
- 서로 뒤따르는 상수 네 개나 여섯 개의 합계를 조사하라. 당신의 조사를 기술하고 상관관계를 말과 공식으로 설명하라.
- 상수의 숫자가 n 개가 될 때 어떤 상관관계가 성립되는가?

(통과 5 점/ 우수 6 점)

<스웨덴 국가 학업성취도평가 서술형 문항 평가기준(수학)>

[서술형 문항 11] 평가의 초점	질적수준		
	낮음		높음
<p>방법선택과수행: 학생이 문제상황을 어느 정도 이해(해석)하고 문제를 푸는가? 학생이 문제해결을 위해 방법과 접근법을 잘 사용하는가?</p>	<p>학생은 서로 뒤따르는 홀수군을 계산한다. 학생은 서로 뒤따르는 짝수군의 계산을 시작한다.</p> <p>(1/0) (2/0)</p>	<p>학생은 서로 뒤따르는 짝수군의 계산에 타당한 대수학적(algebra) 표현을 사용한다.</p> <p>(2/1)</p>	<p>학생은 모든 경우에 있어서 문제해결에 타당한 방법을 사용하여 시작한다.</p> <p>(2/2)</p>
<p>수학적논리: 평가, 분석, 숙고, 검증 그리고 다른 형태의 수학적 논리가 표현되었는지, 그 질은 어떠한가?</p>	<p>학생은 몇개의 서로 뒤따르는 수를 계산할 때 숙고하고 타당한 결론을 도출한다.</p> <p>(1/0)</p>	<p>학생은 보편적인 논리로 서로 뒤따르는 수의 유사성이나 대수적 유사성을 기술한다. 학생은 짝수군의 수에 맞게 모델을 수정한다, 예를 들어 두 수의 평균을 사용한다.</p> <p>(1/1) (1/2)</p>	<p>학생의 결론이 모든 경우에 있어서 대수적 표현을 사용한 보편적 논리 위에 세워져 있다.</p> <p>(1/3)</p>
<p>풀이과정의 구조와 수학적언어: 학생의 문제풀이를 얼마나 명쾌하고, 뚜렷하고 완벽하게 했는가? 학생은 수학적 언어, 상징과 규칙들을 잘 사용했는가?</p>	<p>문제해결을 어떻게 했는지를 추적할 수 있지만 단지 문제의 일부만 포함되어 있다.</p> <p>(1/0)</p>	<p>문제해결을 어떻게 했는지를 쉽게 추적할 수 있고 문제의 대부분을 포함하고 있다. 사용된 수학적 언어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다.</p> <p>(2/0)</p>	<p>문제해결을 어떻게 아주 정연하게 정리했고 문제의 대부분을 포함하고 있다. 사용된 수학적 언어가 타당하고 정확하다.</p> <p>(2/1)</p>

* 괄호안의 숫자 중 첫째 숫자는 통과점수 둘째 숫자는 우수점수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1/2)는 통과점수 1 점과 우수점수 2 점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 참고 문헌

- 김인춘 (2007). 스웨덴모델 - 독점자본과 복지국가의 공존.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 스웨덴 스톡홀름시 뢰다베리종합학교(Rödabergsskolan) 8학년 성적표.
- 이윤미 (2010a). 핀란드 교육 성공의 역사: 100년의 숨고르기, 40년의 내공 쌓기. 핀란드 교육혁명. 서울: 살림터.
- 이윤미(2010b). “스웨덴의 교육평가”. 진보교육, 4월호.
- 이윤미, 손지희 (2010). “스웨덴교육에서의 학력관 및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사회적 함의와 시사점”. 교육문제연구, 38, 25-57.
- 후쿠타 세이지 저, 나성은, 공영태 역 (2008). 경쟁에서 벗어나 세계최고의 학력으로: 핀란드 교육의 성공. 서울: 북스힐.
- 에르끼 아호 외 저, 김선희 역(2010), 에르끼 아호의 핀란드 교육 개혁 보고서 : 우리 교육의 희망과 대안을 찾아, 서울: 한울림
- Väälijärvi, J. (2009). 핀란드의 대입제도, 핀란드 교육정책 세미나 자료집 (연구자료 ORM 2010-35, 2010.9.).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Esping-Andersen, G. (1992). The making of a social democratic state, in Misgeld et al. (eds.). *Creating social democracy: A century of the social democratic labor party in Sweden*. University Park: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 Esping-Andersen, G. (1998). *The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Kim, L. (1979). Widened admission to higher education in Sweden (the 25/5 scheme). *European Journal of Education*, 14(2), 181-192.
- Lindensjö, B. (1992). From liberal common school to state primary school: A main line in social democratic educational policy, in Klaus Misgeld et al. (eds.). *Creating social democracy: A century of the social democratic labor party in Sweden*, University Park: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 Lysne, A. (2006), Assessment theory and practice of students' outcomes in the Nordic countries, *Scandinavi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50(3), 327-359.
- Miron, G. (1993). *Choice and the use of market forces in schooling: Swedish education reforms for the 1990s*. Doctoral dissertation, Institute of International Education (IIE), Stockholm University, Sweden.

- Miron, Gary (1996), Free choice and vouchers transform schools, *Educational Leadership*, 54(2), 77-80.
- Miron, G. (1998). Restructuring education in Sweden, in Tjeldvoll, Arild (ed.). *Education and the Scandinavian welfare state in the year 2000: equality, policy and reform*. New York: Garland (151-172).
- Misgeld, K. et al. (eds.) (1992). *Creating social democracy: A century of the social democratic labor party in Sweden*. University Park: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 Skolverket (2005). *National assessment and grading in the Swedish school system*. Stockholm: Skolverket.
- Steinmo, S. (1988). Social democracy vs. socialism: goal adaptation in social democratic Sweden. *Politics & Society*, 16, 403-446.

웹페이지

<http://www.skolverket.se/sb/d/2912>

<http://www.studera.nu/studera/1636.html>

<Abstract>

Implications of the Educational Evaluation and Admissions Policies
in Sweden and Finland

Yoonmi Lee

This paper looks into the Swedish and Finnish practices in educational evaluation and discusses the implications with regard to the Korean educational system. Educational evaluation in Korea differs from the Nordic context in that most tests are norm-referenced and are geared toward the admissions criteria of the higher educational institutes. The high-stake exams in Korea have been considered the sources of educational problems which lead to a vicious circle in education. In the Swedish and Finnish cases, teachers practice higher degree of freedom or autonomy in their classroom teaching and student evaluation (than their Korean counterparts). Schooling in these countries focuses more on having the students reach the achievement standards than ranking them to meet the selection criteria of the universities (or the workplace).

【Keywords】 Sweden, Finland, educational evaluation, admissions criteria, achievement standards, goal-referenced testing